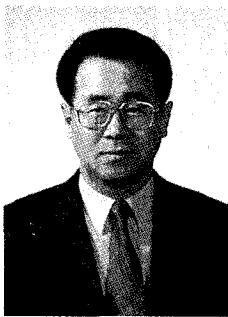


환경과 환경림조성

김 은 식 / 국민대 교수
산림자원학과



1. 생태학과 환경문제

지구를 살려야한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대규모의 환경문제와 생태계의 파괴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생태학(ecology)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생태학은 일반적으로 '특정생물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생물과의 상호관계나 그 생물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생태학은 생물학에 포함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한편, 우리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생태학적 또는 생물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시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연구하는 학문을 '환경생태학(環境生態學, environmental ecology)' 또는 '환경생물학

(環境生物學, environmental biology)'이라고 한다.

유사이래(有史以來)로 요즘과 같이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수난을 받고 있는 때는 없었다. 금수상산(錦繡江山)이라고 하였던 우리의 국토는 온통 쓰레기로 더럽혀 졌고, 산과 하늘에 살던 호랑이와 독수리를 비롯한 큰 동물들은 대부분 이미 이 땅에서 멸종되어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음식물과 공기 그리고 물이 오염되어 우리는 매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지는 이미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자연파괴의 주요 원인자인 우리 인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 후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자기만 알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만 알고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지 않으며, 인류만 알고 다른 생물종(生物種)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인적, 시대적 및 집단적 이기주의(利己主義)에서 나온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

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상당히 명쾌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첫째,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토가 큰 병에 걸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병을 낫게 하는데 우리 모두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둘째, 우리가 쓰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사용하고, 사용하는 자원은 그 효율을 최대한도로 높여서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나 사용하는 모든 자원의 폐기물이 자기 자신을 벗어났을 때, 자기의 이웃, 사회, 국가 및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깊이 생각을 해야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넷째, 우리 주변의 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류를 보호하는 행위가 되는데, 특히 지금과 같이 생태계의 구조가 파괴되어 가면 우리의 생활 터전은 매우 쉽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과 생태계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처방은 바른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태계 문제에 대한 근원적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시작하도록 지원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주요한 결과를 알도록 해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면 우리들의 생태계는 차츰 소생해 갈 수 있을 것인데,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태계가 정상상태를 회복하는 날, 우리는 쾌적한 환경적 혜택을 누리게 될 뿐 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로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태계 회복사업은 이미 시간이 매우 늦어 버린 상태인데, 이것은 특정인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 해 내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 이유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탐욕을 억제하고 파괴 본능을 줄이는 것과 매우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우리의 임업문제

우리의 산은 예로부터 생산력이 매우 높은 땅이었다. 그런 산을 누구나 이용만 하고 전혀 돌보지 않았으니 점점 나빠져 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임학인들이 연구를 하면서 달성하고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우리의 산을 '금수강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목표는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수강산을 가장 쉽게 상징적으로 기술하자면, 그것은 호랑이나 독수리가 자연상태에서 활기있게 자연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숲 속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호랑이가 인간으로부터 숨어 살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여우, 늑대, 사슴 및 곰 등이 많이 살고 있어야 하며, 또 그러한 동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작은 동물 및 식물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곳의 땅이나 물은 농약오염이나 다른 환경오염에 물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안의 동식

물로 구성된 먹이사슬이 차례 차례 오염이 되어, 결국 제 명(命)에 살 수 있는 고등동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금수강산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이상이 실현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창조자가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떳떳한 선조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안타까운 현실은 산림사업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인식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산림과 함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같이 하여 왔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곳들은 다 큰 강과 울창한 숲을 끼고 있었다. 유사이래로 자기 나라에 있던 숲을 다 파괴하고 없앤 나라치고 지금 흥성한 나라가 있던가? 반대로, 숲을 좋게 가꾸어 주는 나라치고 흥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지를 앓았던가? 지금도 그렇다. 세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일찍부터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숲을 가꾸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들에 있는 임목축적(林木蓄積)은 동일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보다 8배 내지 10배나 더 많은 것이다. 그들 나라 사람들이 숲을 아끼는 마음과 숲을 가꾸는 사람에게 해주는 대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 만 언급하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결의와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숲은 지금보다 수십배 이상의 동식물자원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획기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현실을 극적(劇的)으로 표현하자면 “정부는 전 국토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숲을 방치하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숲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흡수해서 산림을 조성할 의욕이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산림사업에 투자해온 임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왔다”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산림정책은 있어 왔지만 임업은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해보인다. 우리나라의 산림과 환경을 양적 및 질적으로 키워나가고 실질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가치 “환경산림부”를 정부부처내에 두기를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3. 환경문제의 이해와 생태계연구의 특색

우리 국토는 최근에 엄청난 환경오염에 휩싸여 있다. 공단과 대도시 주변은 대기오염과 산성우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고 있다하고, 우리는 호흡기질환같은 오염병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한편, 하천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골프장 등에서 씻겨 내려온 유해 화학물질들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수질은 우리 인간이 마실 수도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국토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때문에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고, 그 쓰레기 중 일부는 몇 백년가도 썩지 않아 우리 국토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한다.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생태계의 상태를 진단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의학, 위생학 및 농림학 등의 자연과학과 경제학,

법학, 교육학 및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부문의 학문들이 상호연관을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만이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환경오염문제는 최근에 들어 생태계에 대한 스트레스(stress)라는 개념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에서 생태학은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란 에너지와 여러가지 물질이 생물을 통하여 순환하고 전류되고 축적되며, 생물들의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태계내에서 생물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및 분해자로 크게 구별되는 영양단계를 구성하여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생태연구는 이러한 생태계를 그 연구단위로 할 때 여러가지 생태현상과 내부구성인자들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생태계를 대상으로 그 구조, 기능 및 발달에 대하여 연구하는 연구분야를 생태계 생태학이라고 한다. 최근에 들어 세계 도처에서 인위적 교란(攪亂)현상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증대되고 그 영향범위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만큼 커짐에 따라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생태계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생태학이 세계적으로 발달하게된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

생태계에 있어서 환경은 인간, 기계, 토양, 도시, 숲, 호수, 하천, 하구 및 대양 등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들을 한데 연결시키는 것은 물질 및 정보의 순환과 연계되어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던 때에 생태학



은 한 두개의 환경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는 매우 좁은 자연계의 일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터널에서 본 좁은 시야(tunnel vision)"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더 큰 생태계의 반응양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상태하에서도 우리 인류의 생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우리가 취급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양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기반이 위태롭게될 상황에 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환경과 연계된 시스템 연구분야의 발전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스템이란 '여러개의 구성요소가 모여서 특정한 과정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총체적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그 시스템의 구조와 상호작용 및 장래 발전전망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환경오염문제의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게 해주고, 적절한 환경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외국의 환경정책기구들은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연구 접근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시스템내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며, 컴퓨터가 발달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용이하게 되는 등 학문적·기술적인 발달이 비약적으로 진전됨에 발 맞추어 앞으로의 발전전망이 크게 열려있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내 여러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는 것이 이 분야 발달의 기초적 전제가 된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인 생태계연구의 시발지인 미국 뉴-햄프셔주 소재 "하바드 부록" 생태계연구단지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곳에서 많이 이루어 졌고, 지금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좁은 시야'를 벗어난 생태계연구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태계연구는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고, 혼자보다는 여러사람이 함께 해야하며, 한 분야보다는 여러분야가 공동으로 해 나갈 때, 그 연구 효과를 크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계 중 일부지역을 특정 연구대상 생태계로 지정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계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여러 학문분야가 효율적으로 공동참여

하여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기원해 본다.

한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계와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환경계(nosphere)는 생물권(biosphere)에서 순수한 생물계를 제외한 인간을 둘러싼 사회계(social system)와 기술계(technical system)를 합친 것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21세기 선도기술개발사업을 계획·추진하려 한다. 이 계획에 환경오염방지기술분야를 포함시켜 국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킴과 아울러 환경보전 관련기술에 대한 수출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요한 세부분야는 지구환경보전, 대기오염방지, 환경종합관리, 수질오염방지, 폐기물의 처리·회수·재활용, 토양오염방지 및 저오염/무공해공정 등의 기술개발이 포함된다. 복잡한 환경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개의 학문분야가 함께 팀을 이루어 학제적 연구를 하는 접근방법이 바람직한데, 그래야만 우리는 맑은 물, 깨끗하고 파란 하늘, 그리고 많은 동식물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안정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공해없는 환경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의 고귀함과 안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다.

4.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성

21세기에 우리 인류는 환경적·자원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류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활동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은 대부분 고갈될 것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엄청난 인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의 양도 엄청날 것이며, 환경오염과 전쟁기술발달에 따른 인류 자멸의 가능성도 매우 커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서는 지구를 살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부각될 것이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는 '녹색의 물방울(green bubble)'이라고 불리는 지구위에서 지속적으로 문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1982년 미국에 있는 Worldwatch Institute는 그 연구소가 간행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섯가지 단계(Six Steps to a Sustainable Society)"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인류가 기술적 발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요한 문제를 미래에 있어서 자원고갈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단계를 6가지로 요약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세계인구의 안정, 둘째 농지의 보호, 셋째 지구면의 재조림(再造林), 넷째 소비위주 사회의 지양, 다섯째 에너지절약, 그리고 여섯째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장래를 조망해야 한다. 그 이후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을 때 맞출 수 있는 성취감을 생각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생불가능(再生不可能)한 자원의 절약은 현재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 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

문에 더욱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환경기구(UNEP)는 1990년도 세계 환경의 날의 테마(theme)를 "어린이와 환경(Children and Environment)"으로 정하고, 표어(slogan)를 "우리의 환경은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로부터 다만 빌어쓰고 있을 뿐이다(We did not inherit the environment, we borrowed it from our children)"라고 채택하여,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현재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5. 서울시내 남산과 비원의 생태계에 대한 소견(所見)

한편,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필자의 연구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필자는 지금 "대기오염과 산성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조사", "고산지역에 있어서 환경변화와 수목의 쇠퇴현상과의 상관성" 그리고 "남산 소나무의 분포와 성장특성" 등과 같이 환경오염과 생태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다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고가 많은 편견에 의해 배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정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문을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어떤 사물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수도의 서울 한 복판에 있는 남산과 비원의 식물들이 산성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이나 TV에 크게 보도됐다. 그 보도가 나감으로써 온 국민들은



'이제 산성우가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웬만하면 비를 맞으려 하지 않게 되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 비를 맞는 것은 낭만적인 행위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 버렸다. 애들도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질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수돗물을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평소에 머리에 내리는 비를 맞는 것을 크게 망서리지도 않고, 집에서 정수하지 않는 수돗물을 먹으면서도 그 물을 마시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 위에 산성비가 내린다 해도 그 때문에 나의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우리 정부에서 국민에게 모두 먹으라고 주는 물이기 때문에 필자가 이 물을 못 믿고 먹지 못하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무척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산성우 문제는 일반적으로

로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한다.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바는, 만일 남산과 비원의 식물들이 진정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들을 실제로 살릴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먹구구식의 처방이 아니고 남산과 비원의 문제를 다각도로 정밀검사를 한 후에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다시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환경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우리의 환경상황은 분명히 나쁘고 지금도 더 나빠지고 있다. 연구를 하는 우리 학자들은, 정확하지 않는 자료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바른 연구를 할 수 없도록 해서도 안 되겠고, 특정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음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빚나가게 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오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 국민상

궁극적으로 국토의 이용과 관련시켜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상(國民像)은 "자기의 소유 불소유를 막론하고 우리의 전 국토를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국토를 아끼고 가꾸어 그 안에서 온갖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많은 동물들이 안심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땅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는 그곳에서 귀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얻어 내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국토보다

더 좋게 된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의 세태(世態)를 보라! 우리의 자연자원을 잘 가꾸려고 하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돈만 벌수 있으면 어떠한 자연의 파괴도 개발이라는 명목(名目)하에서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전국 각지에 골프장이 우후 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하나를 짓는데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고, 수백억원씩에 이르는 돈과 자원이 들어가는 골프장 공사가 '컨트리클럽 개발사업'이라는 미명(美名)하에서 전국토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사업관련자가 얻는 엄청난 금액의 개발차익, 즉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토의 파괴현상은 비단 골프장조성사업만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1978년 선포된 "자연보호헌장"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 같다. 이 헌장은 우리 모두가 자연에서 태어나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은 지금 여러가지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까지 발전하였는데, 우리는 자연이 우선적으로 보전되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이 자연보호헌장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제시해

보라면, 필자는 그것을 우리 가정에 있는 난(蘭)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자연에서 살수 있도록 심어 주고 되돌아 오는 것이라고 제의해 보겠다.

우리 자연에 되 돌아간 난들이 다시 자연에서 피어 만발하고, 그 향이 온 국토를 그윽하게 덮고, 그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진정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7. 임업과 환경문제의 접목 : 환경림의 조성

금번 식목일에 정부는 "환경림"을 조성하여 공해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환경림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숲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문제가 점차 국가간의 문제로 비화되어가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환경림의 조성계획과 국민들의 참여호소는 자못 때늦은 감이 있다.

특히, 나무는 목재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개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생태적 및 환경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림조성은 경제성 제고와 환경개선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숲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급속하게 증가해가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류 모두가 수행해야 할 공동의 과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곳에 나무가 더

잘 자라도록 숲과 토양을 가꾸는 것이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매년 남한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1,000여만 정보의 열대우림을 파괴하여 그 숲을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인류는 자신들의 산림파괴행위가 장기적으로 지구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에 대하여 크게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창하였는데, 이것은 인류가 경제적 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후세대사람들이 충족해야할 미래의 수요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인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류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금수강산이 일제의 수탈과 6·25사변동안의 파괴로 거의 벌거숭이가 된지가 불과 40년전이었는 데, 그 산은 이제 푸른 옷을 입었다. 이러한 녹화사업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의 산에는 나무가 무럭 무럭 커나가고 있는데, 장차 금수강산의 상징인 호랑이와 독수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숲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고, 하늘에서 내리는 산성비를 중화시키며,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계곡에 깨끗한 물을 일년 내 흘러내려 우리가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 숲에 들어서면 우리는 심신이 상쾌해지고, 끝

없이 높푸른 기상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인류의 문명을 유지시켜주는 최후의 완충 지역이라할 수 있는 숲들이 요즈음 안타깝게도 대규모로 파괴되고, 귀중한 동식물자원들이 불법으로 훼손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 숲들을 경제적으로 생산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숲들이 도시, 공단, 도로 및 다른 생활환경에서도 녹색의 가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조성해야한다.

어려한 환경림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를 건전한 토대위에 올려놓는 것이 된다. 환경조림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항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좋은 향토수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보급할 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심은 후 100년 앞을 내다 보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나가야 한다. 셋째,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하는 등,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관리체제를 정비해야한다. 넷째,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특성, 나무의 정화력 및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숲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맑고 푸르게 되돌려줄 생명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힘이 결집된 숲을 만드는데 이 시대의 힘과 지혜를 모아 조성해야 한다.